

‘金배추’ 김장비 28만6천원...8.7% ↑

aT, 4인가족 20포기 기준
양동시장선 1포기 4천원
이마트 “다량 매입 등 통해
판매가 낮춰 가계에 도움”

올해 김장재료 구입비용이 작년보다 1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재료인 배추가 생산량 감소로 ‘금(金)배추’로 불리며 가격이 경충 뛰었기 때문이다.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김장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13개 품목에 대해 전국 19개 지역의 18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4인 가족, 배추 20포기 기준 올해 김장재료 구입비용은 28만6천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대비 8.7% 상승한 격이다.

본격적인 출하시기를 맞아 출하량이 늘어난 배추·무는 3주 전과 비교해 각각 33.2%, 10.0%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

이날 양동시장에서 판매된 배추 1포기의 소매가격은 4천원으로 전년(3천240원) 대비 23%, 평년(2천847원)보다는 40%(1천153원) 올랐다.

무 가격은 2천원으로 1년 전과 평년 대비 33%(500원) 상승했다.

아직 출하량이 많지 않은 생강과 갖은 각각 18.4%, 3.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장 주재료인 무·배추 가격이 생산량 감소로 각각 48.6%, 35.8% 상승했으며, 양념채소인 깐마늘·고춧가루·대파



김장용 배추 수확 올해 김장비용이 배추·무 작황 부진으로 작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해남군 문내면의 한 들녘에서 김장용 배추를 수확하고 있다.

가격은 작황호조로 각각 18.7%, 18.2%, 8.1% 하락했다.

aT는 김장채소 수급안정을 위해 김장이 집중되는 시기에 배추·무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농협은 가격약세인 고추·마늘 등 양념채소를 포함한 김장용 채소를 전국 농협 판매장 2천200개소와 온라인 쇼핑몰(농협몰)을 통해 시중가격보다 20~30% 할인 판매한다.

aT 관계자는 “가을장마와 태풍 피해로 배추·무의 가격이 올라 지난해보다 다소 높은 편이지만, 본격적인 김장시기를 앞두고 작황회복, 정부의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 추진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마트는 전체 김장비용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낮아질 것으로 달리 전망했다.

이마트는 올해 4인 가족 기준 김장비용을 지난해 21만5천840원보다 12.6% 감소한 18만8천700원으로 내다봤다.

이마트는 배추와 무 가격은 올랐지만 고춧가루와 깐마늘, 생강 등 부재료 가격이 하락한 점을 근거로 이같이 추정했다.

김장 비용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고춧가루는 재배면적과 생산량 증가로 시

세가 하락했다. 지난달 5대 도매시장에서 건고추(화건 600g) 가격은 전년 대비 30% 낮은 8천610원을 기록했다.

깐마늘(1kg) 역시 지난달 평균 도매가가 3천937원으로 전년보다 30% 이상 시세가 낮아졌다.

배추 시세는 가을철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생육 부진과 병충해 피해 등으로 지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산지 다변화와 다량 매입(50만통)으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새로운 저장 방식을 개발해 판매가를 대폭 낮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후성기자



‘무등산자이&어울림’ 오늘 견본주택 개관

북구 우산구역 주택재개발, 1천644가구 일반분양
19일 특별공급·20일 1순위·21일 2순위 청약 접수

GS건설·금호건설은 15일 광주시 북구 우산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해 분양되는 ‘무등산자이&어울림’ 견본주택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1층 25개동, 전용면적 39~160㎡ 총 2천564가구로 이중 임대와 조합원분을 제외한 전용면적 59~130㎡ 1천64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별로는 1단지 ▲59㎡A 99가구 ▲59㎡B 64가구 ▲59㎡C 63가구 ▲74㎡A 158가구 ▲74㎡B 84가구 ▲74㎡C 24가구 ▲84㎡A 194가구 ▲84㎡B 278가구 ▲84㎡C 167가구 ▲84㎡D 337가구 ▲114㎡B 35가구 ▲130㎡ 2가구, 2단지 ▲59㎡D 92가구 ▲59㎡E 29가구 ▲59㎡F 18가구 등 총 1천644가구다.

◇2천564가구 랜드마크급 대단지
광주에서 보기 드문 2천564가구 대단지 규모로 희소성 및 상징성이 높으며, 정비사업단지에서는 보기 드물게 약 16%대의 낮은 건폐율 적용으로 단지 내에서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브랜드 대단지에 걸맞은 우수한 상품도 적용된다. 100% 남향(남동, 남서) 배치에 판상형 중심 설계로 채광성과 통풍성을 높였으며, 드레스룸, 다용도실, 알파룸, 펜트리 등을 조성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다양한 커뮤니티·특화설계
랜드마크급 대단지에 어울리는 다양한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입주민 자녀들을 위한 공간인 키즈카페와

단지 내 독서실 및 도서관을 비롯해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입욕시설을 갖춘 사우나, 라운지 등 입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적용된다. 여기에 커뮤니티가든, 엘리시안가든, 갤러리가든, 포켓가든, 다양한 테마의 어린이 놀이터 등 대단지에 걸맞은 조경으로 단지를 꾸민다는 계획이다.

상품도 우수하다. 국내최초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인 시스템라인(유상 옵션)을 비롯해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자이엘 솔루션, 스마트패스 시스템, 미세먼지 알람 보안등, 전력화생형 승강기 등 입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고려한 다양한 특화 상품이 적용된다.

◇풍부한 생활 인프라 갖춰
단지 인근 효동초, 동신중·고, 동신여중·고 등이 위치해 있으며 전남대, 광주교대가 인접해 있다. 롯데백화점, NC백화점, 이마트, 말바우시장, 전남대 상권 등 생활 편의·문화 시설이 근거리로 위치해 있다. 호남고속도로, 제2순환로 등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동광IC가 가깝고 광주역도 인접하다.

◇청약·당첨·입주 등
청약일정은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21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발표는 27일 1단지, 28일 2단지 순으로 각각 진행되며 청약계약은 다음달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무등산자이&어울림 견본주택은 광주시 북구 우산동 392-2번지에 위치, 입주예정일은 2022년 9월이다. /박은성기자

“오픈뱅킹 서비스, 광주은행과 함께해요” 강산농원, 2019 고용우수 인증기업 선정

18일부터 타은행 조회 등 서비스

광주은행은 오는 18일부터 광주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와 스마트폰뱅킹 앱(APP)에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앱(APP)으로 참여은행의 계좌 조회, 결제, 송금 등의 금융 서비스가 이뤄지는 서비스로 지난달 30일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광주은행은 초기 개선사항과 고객 편의성을 고려해 전격 개시한다. 광주은행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해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명의 타은행 계좌를 등록한 후 잔액조회, 거래명세조회, 계좌이체, 자주 쓰는 계좌등록 등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수수료는 각종조회 및 타은행에서 광주은행으로 이체 시에는 500원이 발생하지만, 오픈뱅킹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타은행간 이체수수료도 면제한다.

이와 더불어, 오는 12월부터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전 금융기관 계좌명세 및 잔액을 조회할 수 있는 ‘계좌통합조회서비스(Account Info)’를 인터넷·스마트뱅킹에 적용해 오픈뱅킹 서비스와 연계하고, 스마트뱅킹과 모바일웹뱅킹을 리뉴얼해 오픈할 예정이다.

광주은행 백의성 디지털전략부장은 “디지털 선도은행으로서 고객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해 혁신을 거듭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성기자

천연발효음료 등 생산

강산농원영농조합법인(대표 김영민·사진)이 전남도가 심사한 ‘2019 고용우수 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14일 도내 기업으로 대상으로 일자리 성장성, 고용안정성, 기업경영 건전성상대 등을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강산농원 등 20개 업체를 선정, 발표했다.

보성군 웅치면에 자리 잡은 강산농원 영농조합법인은 2009년부터 우리땅에서 나고 자란 농산물 및 임산물로 천연발효음료, 천연발효식초, 티백류 등을 생산하고 있다. 2017년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강산농원은 취약계층 및 청년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근로자수가 2016년 13명에서 현재 30명으로 2배 이상 고용이 확대됐다. 매출액 또한 2016년 18억원에서 현재 약 60억 이상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강산농원 김 대표는 “직원들에게 행복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회사도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운영한 결과 고용우수 인증기업이 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재정기자

상점 전기요금 줄이는 4가지 방법

- ① 냉·난방 중일 때는 상점 문이 닫혔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② 개방형 냉방, 냉동 전열장은 비닐 커튼을 설치하여 효율을 높여주세요.
- ③ 전자제품과 콘센트, 멀티탭 등을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을 사용하세요.
- ④ 영업 종료 후 환기를 깨두시면 시간당 0.5kWh의 전력을 아낄 수 있어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어머의 마음을 만나다

문화관광시장

광주말바우시장

말바우시장은 광주 북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입니다. ‘말바우시장’이라는 이름은 말 발자국 모양의 바위(말바우)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현재는 그 말바위는 없어지고 건물들이 들어섰는데 그 건물 사이 골목을 중심으로 정다듬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 광주시 북구청으로부터 인정시장으로 등록되고, 최근 2015년에는 중소기업청 “골목형 특성화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의 계속되는 발전을 보이고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담양, 곡성, 장성, 화순, 순창 등의 주변 시군에서 농민들이 직접 경작한 생산품을 가지고 나와서 물건을 파는 전통적거래 장으로 보다 더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구분 : 인정시장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190-9
개설일 : 공식등록일 2005년

점포수 : 511개소
(노점상 900여개)
시장면적 : 68,712㎡(20,685평)

주요취급품목

- 수산 · 건어물, 농산물, 식품 · 음식점, 축산 · 건강원, 의류 · 기타

◆말바우시장 상인회 : 062-262-4082

귀한 것만 주고 싶은 마음
하나라도 더 행복주는 마음
살가운 정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주는 1석 3조 혜택을 누리보세요~!

혜택1
대형마트보다 20%나 저렴!

혜택2
온누리상품권 5% 추가 할인!

혜택3
사용금액 40% 소득공제!

착한가격! **신선한 상품!** **인심에 더하여 정(情)까지!**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광주광역시북구 GWANGJU CITY BUK-GU**

문의 : 062)650-2099